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최필공 토마스

(1744~1801)



최필공은 한양에서 태어나 46세에 입교하였다. 그는 가난하여 결혼도 못 하였지만 훌륭한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다. 1791년 신해박해 때 체포되었는데, 동료들의 배교에도 홀로 신앙을 지켰다. 이에 정조 임금은 ‘어떻게 해서든 천주교 신앙을 버리게 하라.’고 명하였고, 온갖 수단이 통하지 않자 ‘그를 옥에 가두되 특별히 보살펴 주도록 하라.’고 다시 명하였다. 결국 여러 유혹에 굴복한 그는 석방 후 임금의 도움으로 평안도 지방의 관직을 얻고 훈인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항상 천주를 향해 있었기에 3년 뒤 사임한 후, 주문모 신부에게 성사를 받고는 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1799년 8월 다시 체포되었다. 임금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자 그를 한 번 더 석방하였다. 그리고 1801년 또다시 체포되었다. 이전의 행실 탓에 더욱 혹독한 형벌을 받은 그는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사형장에서 첫 번째 칼날이 목을 비켜 가면서 피가 손으로 흐르자, 그는 “보배로운 피!”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렇게 순교하였으니, 때는 1801년 4월 8일, 그의 나이는 57세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연중 제18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70(69), 2, 6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1독서

코헬 1, 2: 2, 21-23

화답송

시편 90(89), 3-4, 5-6, 12-13, 14와 17(◎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콜로 3, 1-5, 9-11

복음 환호송

마태 5, 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루카 12, 13-21

영성체송

지혜 16, 20 참조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카인과 아벨



광야에서 풀을 뜯는 양떼와 목자

이스라엘 땅의 절반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목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유목(遊牧)은 옛 이스라엘에서 농경(農耕)과 함께 경제를 지탱한 기둥입니다. 농경은 아담이 에덴에서 살았던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려줍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창세 2,15). 한편, 유목은 인간이 짐승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음을 드러냅니다(1,26). 따라서 농경과 유목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와 잘 어우러집니다.

그런데 원조들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방증이라도 하듯,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살인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카인이 아벨을 질투한 데서 비롯된 일이지만, 이야기의 한 켠에는 농부와 목자 사이의 오랜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결과적으로 농부가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목자는 인적 없는 광야나 빈 들로 나가 짐승을 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경작지를 짓밟는 짐승에게서 농작물을 보호하려 한 농부와, 풀을 뜯겨 가축을 키우는 목자 사이에는 알력이 있었습니다(예레 12,10 참조). 지금도 목자는 광야에서 소량의 식물에 의지해 짐승을 키웁니다.

창세 4,1에서 “카인”의 이름 뜻은 ‘얻다’ ‘획득하다’로 암시됩니다. 하와가 카인을 낳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 아이를 얻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뜻은 ‘빚다’ ‘단조(鍛造)하다’입니다. 카인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느님”(창세 14,19)이란 구절에서 “지으신”에 해당하는 단어 [코네]와 같은 어근으로, 그 뜻은 주님의 도우

심으로 ‘빚어진’ 아이입니다. 그에 비해, 아벨의 히브리어 이름 [헤벨]은 창세 4장에 이름 뜻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헤벨’이 성경에 흔한 단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허망’ ‘한숨’을 뜻하는 이 단어는 인생무상과 덧없음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고(시편 144,4: “한날 숨결과도 같은 것”) 코헬렛에서는 ‘허무’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이름에는 짧게 지나가는 그의 허무한 삶이 예고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은 굶어보지 않으셨을까요? 답은 이들이 바친 제물의 묘사에 있는 듯합니다: “카인은 땅의 소출을 …, 아벨은 양 떼 가운데 말배들과 그 굳기름을 바쳤다”(창세 4,3-4). 탈출 13,2과 29,13에 따르면, 짐승의 첫 새끼와 굳기름은 하느님께 봉헌해야 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카인의 경우는 땅의 소출을 바쳤다고 나올 뿐 귀한 걸 바쳤다는 어감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마음에서 우려난 제물이 아니어서 카인의 것을 받지 않으신 듯합니다. 상대를 사랑하면 아까울 것이 없는데, 카인에게에는 하느님이 그런 대상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카인은 질투 끝에 동생을 없애고 자신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 늦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인은 자신의 모자람을 성찰하기보다 경쟁상대를 없애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꾀한 셈인데, 이는 더 많이 가지려 상대를 견제하는 오늘날의 경쟁 사회에 경각심을 줍니다. 🌀



하느님 백성의 보편성 (1)

「교회헌장」 제13항 전반부

「교회헌장」 ‘제2장 하느님의 백성’ 9항~12항은 하느님 백성이 자기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제직과 예언자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은사를 통한 왕직의 수행도 암시적으로 담았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직분의 수행이 하느님 백성의 본질적 특징이라면, 이어지는 13항~17항은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에 대한 것으로, 특별히 구성원과 관련된 하느님 백성의 ‘보편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교회 구성원의 다양한 단계들을 제시했던 공의회 초안과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새로운 주제입니다. 초안에서는 세상과 투쟁하는 교회의 구성원과 그들의 구원을 위한 교회의 필요성이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론에서 교회의 구성원은 가톨릭교회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은 교회의 신앙과 성사들 그리고 교도권과의 일치성을 통해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초안은 베드로와의 친교에서 갈라진 형제들과의 결합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톨릭교회를 모르더라도 함축적인 원의를 가지고 하느님의 은총에 열려있는 사람도 세례 지원자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필립스가 작성한 새로운 초안도 가톨릭 신자,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등 가톨릭교회와 연관된 공동체들을 단계적으로 열거합니다.

「교회헌장」 13항은 이러한 단계들과 관련하여,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과 교회의 보편성을 하나의 주제로 결합합니다. 이 항은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새로

운 백성을 이루도록 불린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이고 유일한 하느님 백성은 모든 세대에 온 세상으로 나가, 흩어진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사명을 지닙니다. “모든 세대”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린다는 것은, 하느님 백성이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에 열려있는 보편적 성격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불린다.

이 보편성은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단일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고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그분이 만물의 상속자요 모든 사람의 스승이요 왕이며 사제가 되고 하느님 백성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당신 아들의 성령을 보내시어 당신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온 교회와 모든 신자에게 모임과 일치의 근원이 됩니다. 성령의 작용으로 인한 이러한 일치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친교에서 그리고 빵의 나눔과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느님 백성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의 일치를 향해 있습니다. 이 모임과 일치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중개되어, 하느님 백성은 이 일치를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실현합니다. ☪

성모의 교육

녹음이 우거진 전원을 배경으로 어여쁜 소녀와 함께 책을 읽는 여인이 있습니다. 차분한 갈색 톤이 주를 이루는 이 평화로운 그림은 놀랍게도 프랑스 대혁명 하면 떠오르는 대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린 작가의 작품입니다.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거장 외젠 들라크루아지요. 여기서 낭만주의는 낭만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격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선 자유, 평등, 박애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과 달리, 소탈하고 정적이며 진실한 종교적 신심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외젠 들라크루아 (Eugène Delacroix, 1798~1863), 〈성모의 교육〉, 1842년, 캔버스에 유채, 95.4cm × 124cm, 파리 들라크루아 미술관

노모는 성모님의 모친 안나이고, 소녀는 어린 마리아입니다. 「황금전설」에는 늙어서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던 마리아의 부모, 안나와 요아킴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다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가장 귀하게 쓰이기 위해 수난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이 작품이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건 인위적으로 연출된 성스러움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친근함 때문입니다. 다정한 모녀는 작가의 동시대인 19세기 프랑스 평민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나와 마리아는 과거에 존재했던 이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이웃입니다.

얼핏 보면, 뒤로 숲이 끝없이 펼쳐진 듯하지만, 중경에는 사랑과 열정 그리고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겪게 될 고통을 상징하는 붉은 장미 덩굴이 나지막한 울타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백장미도 보이는데, 바로 성모님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중세 이후, 울타리 또는 벽이 있는 장미 덩굴 정원은 성모님의 무염시태(無染始胎)에 관한 은유로 ‘닫힌 정원’이라 불렸습니다. 인간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염시태의 신비를 아름다운 은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옛 그림들에서는 장미 덩굴이 화려하게 표현되곤 했으나, 들라크루아가 그린 장미는 자연스럽고 은은해 고요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을 품을 듯 넉넉하고 인자한 안나가 앉아 있습니다. 훗날 천상모후의 관을 쓰게 될 마리아, 하지만 그 앞에 앞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고통을 겪을 딸의 앞날을 알기라도 하듯, 안나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기둥 같습니다. 그녀의 넓은 무릎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고, 겸손하게 무릎 꿇은 앓된 마리아는 성경의 한 글귀를 가리키며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깁니다. 사랑하는 딸의 어깨 위로 다정하게 올린 손에서는 어머니 안나의 깊은 사랑과 온기가 전해집니다. 고전적 기품이 배어있는 대자연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넓은 품입니다. 안나와 마리아, 여기 겸손하고 소박한 두 여인은 하느님의 축복인 푸르른 자연에 묻혀, 그 일부가 되어 천상의 신비에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

교구
소식

백석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일시 8/24(주일) 16시

장소 백석동 성당 소강당

주례 김종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문의 010-2093-4519 백 루시아

한마음 성경공부 3단계 - 바오로 서간을 통한 바오로의 영성

주제	일시 / 본관 대강당	일시 / 통나무강당
제1강 바오로 사도의 생애와 회심 안에 담긴 영성과 바오로 서간 개요	9/1(월) 14시	9/6(토) 16시
제2강 바오로 사도의 순례 여정	9/8(월) 14시	9/13(토) 16시
제3강 바오로 사도의 신학 : 구원과 성찬	9/15(월) 14시	9/20(토) 16시
제4강 바오로 사도의 신학 : 교회와 성령	9/22(월) 14시	9/27(토) 16시

회비 1인 8만원 [총4회, 교차 출석 가능]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대상 모든 신자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선번호 211)

신청 ▶



한마음 사계 피정 - 10월 (대침묵 피정)

주제 성경이 가르치는 인문학

강사 김정일 안드레아 신부

일시 10/17(금) 16시 ~ 19(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 8월과 9월 한마음 사계 피정은 마감되었습니다.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2026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부문 ① 장학금 지원 (박사 후 과정, 석·박사 과정, 학부 재학생)

② 학술 연구비 지원 (천주교 및 시노달리타스 관련 연구)

신청기간 9/22(월) ~ 12/12(금)

접수방법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cafl@cbck.kr

문의 02-460-7533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전신자 성경 읽기 8/3(주일)~9(토) : 요한 13,1-20

8/30(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특별헌금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

지난 6월 29일, 교황 주일 특별헌금으로 123,456,450원이 모여졌습니다.

이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통해 교황청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미사 · 피정 ▶▶

한마음다락방 피정 - 18기

2천년 전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느님의
영적 위로와 위안을 받으며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

날짜: 8/29(금)~30(토)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대상: 단체와 가족, 부부 및 개인 모두 가능

인원: 30명 (선착순)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사: 8/5 신교선 신부, 8/12 원희연 회장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서울대교구 제3지구 무료 치유피정 - 매월 셋째(수)

일시: 8/20(수) 11시~16시 (점심 무료)

장소: 갈현동 성당 지하강당 (연신내역 7번 출구)

내용: 4남매, 신부 3명, 수녀1명, 미사, 안수

강사: 구본홍 신부 (그리스도회 필리핀 빈민사목)

문의: 010-4444-1264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8/15(금)~18(월), 8/22(금)~25(월),
9/19(금)~22(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별 출장피정)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8/15(금)~23(토), 9/19(금)~27(토)

효소단식: 8/28(목)~31(주일)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9/12(금)~14(주일)

문의: 010-3340-0201 형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여름피정(우도섬포함): 8/11(월)~13(수),

8/15(금)~18(월), 8/21(목)~23(토)

제주성지순례(추자도포함): 9/7(주일)~10(수),

9/18(목)~21(주일), 10/25(토)~28(화)

자연순례: 9/1(월)~3(수), 10/2(목)~4(토)

문의: 064-796-4182, 02-773-1455

한마음 영성수련

렉시오디비나 묵상기도와

이나시오 관상기도를 바탕으로 한 영성훈련

1차: 10/5(주일)~8(수) [3박4일]

2차: 10/7(화)~11(토) [5박6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대상: 기도를 배우고 싶은 누구나

회비: [1차] 50만원, [2차] 70만원 / 인원: 6명

지도: 김경진 베드로 신부

문의: 031-840-0018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집 피정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8/5(화)~7(목)

회복탄력성강화피정: 8/8(금)~10(주일)

토요성모신심기도와 미사: 8/16(토) 10시~12시

메주고리에 단식피정: 8/20(수)~24(주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 단체피정 및 개인피정 가능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8/9(토) 10시, 풍동 성당

8/16(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8/30(토)~31(주일), 10/11(토)~12(주일)

3박4일: 8/21(목)~24(주일), 9/18(목)~21(주일)

8박9일: 9/4(목)~12(금), 10/17(금)~25(토)

40일: 10/14(화)~11/22(토)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8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및 철야기도

8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8/9(토) 12시~17:30

강사: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전주교구)

삼성산 철야기도-열려라 가정아:

8/5~9/30, 매주(화) 21:30~익일 04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10-3310-8826 (미사, 안수, 중식무료)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봉안당(담), 평장묘

연천 착한의견의 성모수도원의 봉안당, 봉안담,
평장묘(화장후 매장)를 신자분들께 분양합니다.

장소: 연천 착한의견의성모 수도원

문의: 031-834-1262

여름 청년피정 "OFF"

날짜: 8/15(금)~17(주일)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 회비: 5만원

문의: 010-4882-9674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8/8(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찬양과 치유기도회

문의: 010-2127-0032

※ 8/15 성모승전대축일 밤기도회는 쉽니다.

스승예수 청년 피정

수도원 반나절 피정: 8/17(주일) 16시 (5천원)

수도자 1:1 토크순례: 9/14(주일) 15시 (무료)

길을 찾아서 2박3일 피정: 10/7(화)~9(목) 19시 (3만원)

대상: 꿈을 찾는 33세 미만 미혼여성

문의: 010-9816-0072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사제·수도자와 함께하는 제주 산들순례 피정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말씀 성가정 피정 : 8/8(금)~10(주일)

우도: 8/16(토)~18(월), 8/23(토)~25(월)

생태순례: 9/15(월)~17(수), 9/26(금)~28(주일),

10/1(수)~3(금), 10/12(주일)~14(화),

10/27(월)~29(수)

성지순례(추자도): 9/9(화)~12(금),

10/16(목)~19(주일), 11/22(토)~25(화)

장소: 제주 면형의 집 / 문의: 064-732-4702



교육 · 모집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계약직 직원 채용

분야: 행정 사무(저작권 등 업무) / 도서·정기간행물 편집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소식 참조

접수: 8/22(금) 14시까지

문의: 이메일 mano@cbck.kr

마석 성당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

미사: 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성가대 반주 경험이 있는 분 또는 전공자

서류: 자원봉사신청서, 이력서, 교적증명서

접수: 이메일 kth0643@uca.or.kr

(서류 심사 후 면접 개별 통보)

문의: 010-8368-5645 성가대 단장

031-593-4231 사무실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의정부가르멜 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 나이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하는 프로그램 [10일, 100만원]
날짜: 9/15(월)~24(수), 10/13(월)~22(수),
11/17(월)~26(수), 12/8(월)~17(수)
장소: 강원도 홍천 / 대상: 60세
문의: 010-7451-9707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그레고리오 성가,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 연주
문의: 010-9842-8818 (남성단원 환영)

예수회 센터 가을학기 강좌 - 9월 개강

월요피정(무료): 전례와 함께하는 기도
서구문화 속 그리스도교 미술
성경대학: 요한복음1
환시가 답하는 10가지 질문
구약성경 아카데미: 예언서 해설
성경장애와 영성생활
신의 선물, 음악의 희로애락
각 10-12주/ 현장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kr

인천교구 지혜의 샘 프로그램

제6차 33일 감사 피정: 8/18(월) 10~17시
강사: 정병덕 신부, 한영임 회장 (점심무료)
성경통독 & 길잡이 맥도형틀 (마인드맵)
내용: 도형틀을 통해 성경의 내용을 외우며
통독함 (교재2만원, 등록1만원)
9/1부터 매주(월)/ 루카: 매주(수)
통독: 매주 월·수·목·주일 - 오전/오후반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샘 (중동역 5분)
문의: 010-3248-9705, 유튜브 '지혜의샘 북방'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5234호
전화: 02-2274-1843~4, www.cdcc.co.kr

국제ITEC아로마테라피과정 수강생 모집

내용: 국제자격증과정 이론과 실기,
증상별 블렌딩, 건강관리방법
일시: 9/13~1/10, 매주(토) 10시~18시 [18주차]
장소: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천시 역곡)
문의: 02-6166-1272 (전화 접수 가능)
<https://lifelong.catholic.ac.kr>

**안내 · 기타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일시: 월~금, 10시~16시
내용: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문의: 02-990-9366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
11/7(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45만원)
11/21(금) 이탈리아 일주 (12일, 560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원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9/22(월)~25(목) 일본 나가사키 (140만원)
10/14(화)~24(금) 동부 유럽 4개국 (510만원)
10/16(목)~27(월) 유럽 성모발현지 (510만원)
11/10(월)~21(금) 멕시코, 페루 (795만원)
문의: 02-2281-9070

이태리 정기회년 성지순례

9/18(목) 이태리 성체기적성지 (9일, 아시아나)
지도: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9(금)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13(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10/28(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11/10(월) 회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13(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1/17(토)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멕시코 성지순례 - 10박11일

11/25(화) 성모발현지 과달루페, 칸쿤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10/20(월) 유럽 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10/14(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399만원)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0/22(수) 이탈리아, 메주고리에 (11일, 495만원)
11/4(화), 11/12(수) 이탈리아 (11일, 국적기직항)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공모**제1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동영상 공모전

7.6. ~ 9.7.

신앙생활 속 희망, 웃음, 위로, 감동이 담긴 영상을 공모합니다.

모집기간: 7/6(주일) ~ 9/7(토)

공모자격: 의정부교구에 교적을 둔 신자

영상규격: 10분 이내, FHD(1920X1080) 이상

출품방법: 교구소식 공모전 게시물 참조 / QR 삽입

수상작 발표: 10/12자 후보 및 홈페이지

시상내역: 대상 1명 50만원 / 우수상 2명 30만원 / 장려상 3명 20만원

문의: 031-850-1435, redglove@uca.or.kr

접수 ▶



영성체 (Communio) ③

미사 중 성체 분배가 끝나면, 사제는 제대로 돌아와 남은 성체를 모아 감실에 모시고 성반과 성작을 정리합니다. 이때, 성반과 성작을 닦으면서 속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모신 성체를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게 하시고 현세의 이 선물이 영원한 생명의 약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사제는 주례석에 앉아 교우들과 함께 잠시 감사 침묵 기도를 바칩니다. 이 감사 침묵 기도는 과거 미사 후에 바쳤던 개인 감사 기도를 영성체 직후로 옮긴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침묵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아 모신 은총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미사 중에 침묵을 지키는 순간은 여럿 있지만, 그 위치나 의미로 보아 영성체 후 침묵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침묵을 생략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또한 묵상문을 읽거나 악기 연주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완전한 침묵 중에 각자 주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때로는 영성체 중에 성가를 부르지 않아 영성체가 끝난 다음 성가를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감사 침묵 기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침묵 기도가 끝나면, 사제는 주례석이나 제대에서 영성체 후 기도(Postcommunio)를 바칩니다. 이 기도는 본기도(Collecta), 예물기도(Oratio super oblata)와 함께 주례 기도에 속합니다. 사제는 다른 기도들과 마찬가지로 손을 펴 들고 바칩니다. 기도의 구조는 본기도와 같아 <① 기도권고, ② 침묵, ③ 기도, ④ 아멘>으로 이뤄지는데, 차이점은 끝부분이 짧은 마감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체 후 기도를 통해 공동체는 침묵 중에 개인적으로 드린 감사의 마음을 모으고, 신자들은 거행된 성사의 효과들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또한 미사의 신비가 실생활 중에 좋은 열매를 맺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간청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성화, 치유, 정화, 천상을 향한 열망 등이, 공동체 차원에서는 은총, 일치, 사랑의 선물 등이 언급됩니다. 오늘 연중 제18주일 미사의 영성체 후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 후 기도로 영성체 예식, 나아가 성찬 전례가 모두 끝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감사 침묵 기도와 영성체 후 기도 사이에 공지 사항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공지 사항을 전달하는 건 영성체 신비를 묵상하는 흐름에 방해가 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공지 사항 전달은 영성체 후 기도까지 마치고 마침 예식(Ritus Conclusionis)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봉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9: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8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류기정 베드로, 이덕희 데레사, 한언년 마리아
이현택 안토니오, 황아레 아네스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8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례

- 행주성당 전대사 미사 안내
1. 교황직할 로마 성모대성전 주보 축일
일 시: 8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안수예식 있습니다.
2. 성모 승천 대축일 (행주성당 주보 성인 축일)
일 시: 8월 15일 오전 9시, 11시
※ 11시 교중 미사 집전: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
당일 11시 미사는 매우 혼잡하오니 차량은 행주대교
아래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 지 / 단 체

- 8월 사목협의회
일 시 : 8월 17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하느님의 집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교구 내 성전 부지 마련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8월 3일	주송자	전옥자 수산나
	김순곤 라자로, 이경예 마르타	
8월 10일	주송자	오정화 아네스
	배성은 소사아가다, 구미경 리베라따	

우리들의 정성 (7/21 - 7/27)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6건 920,000원
주 일 헌 금 892,000원

- 감사헌금
오미애 루이사 300,000원
장택수 베드로 100,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성모순례지 후원금 445,000원
초 봉 헌 445,000원

* 정기후원 문의는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182-0168-51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 금주의 복음 말씀 -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화답송

